

광 고

원양산업

제 1132 호
(2021년 4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4월 9일부터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가능 / 4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 개최 / 5
-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 6

■ 협회 3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공치 요리 만들기 / 15

(공치양념구이)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1년 3월 보고 내용 / 16



해외수산정보

- #### ■ 참치어업 동향
- 생선 DNA,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에 이점 제공 / 20
 - 만타 가다랑어 가격 안정적 유지 / 20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2019년 가다랑어 어획 최대 / 21
 - 방콕 가다랑어 가격 1,400 달러 유지 / 21

- 2019년, 전 세계 참치 어획량 20만톤 증가 / 22
- 중국 냉동 참치 원어 수출 증가 / 22
- 일본 눈다랑어, 황다랑어 어가 상승 / 23
- 세이셸 외국인 선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 23
- 충격적인 넷플릭스 다큐, 잘못된 정보 많아 / 24
- 모리셔스 참치캔이 인도시장 정복? / 24
- 완전 양식 참치 육종 개량 / 25
- 선망선, 2월에도 PNG에서 더 많이 조업 / 25
- 중국, 남태평양 원양어업 8년 만에 150% 증가 / 26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 감소 / 26
- 일본, 2020년 참치 수입 감소 / 27
- ISSF: RFMO는 어획 관리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 28
- 호주 업체, 고칼슘 참치분말 캔 출시 / 28
- 태평양 연안국, 참치 확보 위해 EEZ 고정 노력 / 29
- 스페인 통조림 업계, Nutri-Score 문제 제기 / 29
- 테스코의 야심찬 참치 조달 전략 / 30
- IOTC 특별회의,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나 / 30

■ 오징어어업 동향

- 우루과이, RFMO 창설 위해 주변국과 협력 원해 / 31
- 7월 상파울루/산티아고-포클랜드 취항 가능? / 31
- 포클랜드, 해양관리구역 공개 협의 시동 / 32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명태 수급 국내 동향 (2020말) / 33
- 패밀리마트 명란젓 스낵 신제품 출시 / 34
- 러시아 명태 어획 17% 감소 / 34
- A시즌 명태 Deep-skin 생산 증가 지속 / 35
- 러시아 2022년 TAC 권고안, 올해 수준 / 35

■ 꽁치어업 동향

- 일본 '20년 말 꽁치 채고 1만톤 붕괴 / 36
- 일본 업체 LED 집어등, 효과 보여 / 37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참다랑어 양식실태 통계 요약 (2020말) / 38
- 일본, 어업 환경 변화 장기화 경계 / 39
- 일본제지 그룹, 어류 수송 골판지 개발 / 39
- 도시바 테크, 선도 평가 시스템 / 40
- 일본, 2050년까지 인공종묘 비율 100% / 40
- 가루만으로 어묵 요리 가능 / 41

■ 각국 수산 동향

- 영국, 수산업계 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공개 / 42
- 노르웨이 Lie Gruppen사, 포일 장착 트롤선 주문 / 42
- 노르웨이 대구 양식의 미래 / 43
- 영국, 민간에서 무료 온라인 경매 시스템 개발 / 43

- EU-영국 어업 협상 난항 / 44
- 스코틀랜드, LED 조명으로 혼획저감 시도 / 44
- 모로코 위원회, 모로코-러시아 해양수산 협정 승인 / 45
- 나미비아 수산부, 민대구 15,948톤 경매 / 45
- 캐나다 그룹, Young's Seafood 모회사 인수 / 46
- 세이셸, 신규 구역 수산물 가공 신청 기업 평가 / 46
- 대만, 어선 강제 노동에 대한 NGO 보고서 대응 / 47
- 영국 어업 기술 혁신 / 47
- MZ 세대, 지속가능한 수산물 구매 전환 주도 / 48
- 3국(노르웨이, EU, 영국), 북해 자원 관리 합의 / 48
- EU 의회, 새로운 수산 통제 시스템 도입 / 49
- 세이셸 SFA 이사회 의장 선임 / 49

■ 쉬어가는 난 (詩)

- 바다의 마음 <이육사> / 50

■ 국내 수산 뉴스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 51
- 해수부,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2021~2025)」 발표 / 52
- 원양어선 선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 53
- 사조그룹, 원양어선 1척으로 시작해 50년만에 매출 3조원 달성 / 53
-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선원박물관-마도로스 거리 만들자 / 54
- 허가어선 대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54
- 해양디지털정보 국제협력거점 한국에 설립된다 / 55
-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첫 정책 협의회 / 56

4월 9일부터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가능

질병관리청 및 법무부 지침 변경

선원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되어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선원과 원양업계는 근 1년 간 지속된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문제로 피해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법무부의 '무비자 외국인 선원 입국 제한', 올해 1월 질병관리청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로 인해 외국인 선원들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원양어선에 발이 묶여 있어야 했다.

지난 4월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소식을 알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에 따르면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예외 적용된다. 단, 내외국인 편승자는 모두 입국 후 14일 간 격리해야 한다.

이어서 4월 9일 법무부는 '국적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편승입국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국내 출항 후 공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의 외국인 선원이 편승입국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받고 귀국 항공권(예약확인증) 소지 및 출국보증각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편승 입국을 허용했다.

문제가 해결된 데에는 신문·방송,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컸다.

4월 6일 MBC 8시 뉴스에 『"아파도 발 동동"·망망대해 고립된 원양어선 선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선원 편승 문제가 방영되었다.

이 뉴스에서는 먼저 맹장염 의심 증상이 있어 운반선으로 갈아타고 부산에 왔으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후 일본으



로 가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 다시 국내 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됐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초 "다른 입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던 질병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로 뉴스가 마무리됐다.

이 뉴스는 원양산업노동조합과 NGO에서 나서준 덕분에 방영되었다. 우리 협회가 먼저 외국인 선원 편승 문제 해결을 위해 원양산업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했고 원양산업노동조합 주최로 협회, 업계, 공익법센터 어필이 모여 해결 방안을 협의한 후 어필에서 동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이전에도 현대해양(2020.12월호), 한국수산신문(2021.3.29)에서 이 문제를 다룬바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4회 제2차 임시회(2021.2.17)에서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 개최

표준 매뉴얼 초안 협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5일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김영민 사무관, 라은교 주무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 우리 협회 김효상 과장 및 원양업계 20여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선에 ‘안전관리지침’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원양선사는 관련지침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업계가 참고할 ‘안전관리지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연수원에 ‘원양어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이날 협의회는 동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물인 안

전관리지침 초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업계는 선박별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정부에 출항정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출항정지와 관련해 동 지침이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출항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고, 기타 질의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다.

동 연구용역이 4월말 완료되고 표준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된 후 ‘21년 8월부터는 원양어업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지침의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연수원은 지난 연말 원양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2차례 실시했으며, 현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사 주소·연락처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동원수산(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6/7층(역삼동, 동주빌딩)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85(신평동)
	Tel)02-528-8000 Fax)02-564-1300	Tel)051-201-0055 Fax)051-206-2715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4월 19일부터 시작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국내외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및 합작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원양업체의 생산수출 및 경영실태 등의 정보는 원양어업 정책, 연구 및 경영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는 2021년 8월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된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 최봉준 대리가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 일시 : 2021년 4월 24일(토) 오후 1시
- 장소 : 호텔금오산웨딩홀 컨벤션센터 2층
- 신랑·신부
 - 신랑 : 최필우 박숙자의 장남 봉준 군
 - 신부 : 김진복 우영숙의 차녀 소희 양

회원사 대표이사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양수산(주)	최정문	박점식
신라교역(주)	이광세, 홍성호	김호운

협회 3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21. 1월분 업종별회비
- 협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 관련 업무추진
 - 16개 대학과 잡코리아에 채용공고(3.23한)
 - 해외협력, 홍보, 제도·선원관리 각 1명
- 협회 임원 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신청서류 제출 요청(임원사 대표이사)
 - 2021년도 협회 정기총회(2021.2.25)에서 신규 상근 임원이 선임됨에 따라 협회 법인등기 변경 필요서류(위임장 등) 요청
 - * 등기 완료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화원사)
 - 대양수산 대표이사 변경(최정문 ⇒ 박점식)
- '20 협회 수익사업 세무조정 업무추진
 - 임대 수익사업 및 차량계량 사업에 대한 결산전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등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21. 2/4분기 월회비
 - '21. 2월분 업종별회비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화원사)
 - 동원수산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 부산시 사하구을숙도대로 685)
 - 신라교역 대표이사(이광세, 홍성호 ⇒ 김호운)
- 2020년도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서초세무서)
- '21. 3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021년도 협회 회원수첩 제작 업무 추진
 - 유관단체 변동사항 및 연락처 등 조사파악

기획홍보부

-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
 - 일시 : '21.3.11, 14: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 외 3명, 원양선사, 협회 양 임원 등 6명 / 총 17명
 - 내용 : 원양어업 활성화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선원교체 및 원양산업과의 역할과 중요성 등 12건 건의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 2021년 정기총회 관련 업무추진
 - 정기총회 관련 자료책자 우편발송
 - 정기총회 및 제14차 이사회 결과보고 등 후속조치
- 원양어선 조업선진화를 위한 기획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일시 : '21.4.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 외 4명,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책임연구원 외 1명,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한성기업, 해천물산, 협회 기획홍보부 이사 외 1명
 - 내용 : 케이프타운협정 도입 추세에 따라 향후 원양어선 신조 시 협정 적용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수위구조가 열악한 업종의 장기 발전 방향 모색
 - 원양어업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 원양연승어업의 표준선형 개발 기획안 마련
- '21년 2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계	75,614	137
- 참치	54,175	128
· 핏감용	5,679	91
· 통조림용	48,495	134
- 명태	0	-
- 오징어	15,864	340
- 꽁치	0	-
- 기타	5,576	67

- 원양산업지 3월호(제1131호) 제작
 - 협회소식 4건(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강화되는 방역지침 피해 눈덩이, 정기총회 결과, 참치데이 홍보)
 - 국내소식 8건, 해외수산정보 29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동향 등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3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관련 업무 추진
 - 제95호(3.3) 정보 9건(방콕 가다랑어 가격상승 가속화/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명태 소비감소 / '21~'22년 북태평양 꽁치 TAC 40% 감소)
 - 제96호(3.10) 정보 11건(타이유니온, '25년까지 참치 공급망 투명화 약속/ 알래스카 생산문제로 명태 가격상승/ 노르웨이 어업표준 개발)
 - 제97호(3.17) 정보 12건(테스코의 야심찬 참치 조달 전략/ 7월 상파울루/산티아고-포클랜드 취항 가능?/EU, 새로운 수산통제시스템 도입)
 - 제98호(3.24) 정보 14건(태평양연안국, EEZ 고정 노력/ 러시아 명태 TAC 소진율 42.1%/ 대만의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조치)
 - 제99호(3.31) 정보 15건(넷플릭스 다큐, MSC 엔터리라고 주장/ 러시아 명태 A시즌 어획량 20% 감소/ 나미비아 수산부 민대구 경매)

○ 언론 대응

- 가. 한국수산신문에서 외국인선원 입국 관련 자료 요청, 원양산업지 게재 원고(12월, 3월) 및 정부 건의 공문 송부(3.23)
 - 한국수산신문(3.29) 1면, 5면에 '일방적 방역지침에 원양업계 속앓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원양업계 피해 눈덩이' 보도
- 나. MBC에서 「“아파도 발 동동”...망망대해 고립된 원양어선 선원들」 보도 관련 원양어업 조업 동영상 편집, 송부(4.6)

회원지원부

- IMO제8차 오염방지대응 위원회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담당 사무관 외,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의제 협의
- 오징어채낚기 어로계약서 변경 관련 업무추진
 - 가.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3.4, 14:00 / 원양노조
 - 참석자 :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외 / 정일산업 전선중상무, 회원지원부 이사
 - 내용 : 채낚기 업종 어로계약서 변경 건 협의
 - 나.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26,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승진수산 등 6개사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어로계약서 '상여금' 규정 변경(안) 협의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점검관련 업무추진
가. 점검대비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9, 15:30 / 영상회의
- 참석자 : 원양선사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제1차 노사정 합동점검 결과 공유 및 제2차 노사정 합동점검 대비

나.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제2차 노사정 합동점검을 위한 임금 수령여부 설문지, 근로시간 기록지 등 자료제출 요청(회원사/3.11)

- 제2차 합동점검 : 4월초 예정

○ 원양 노사관련 업무추진

가. 원양노조 위원장 등 협회방문

- 일시/장소 : '21.3.9, 12:00
- 방문자 : 박진동 위원장, 최승철 사무처장 외 본부장 2인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원양노조 집행부 변경에 따른 상견례

나. 2021년 노사현안사항 등 협의

- 일시/장소 : '21.3.18, 17:15
- 방문자 : 박진동 위원장, 최승철 사무처장 외 본부장 2인 / 협회장, 노사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노사현안사항 협의 등

○ 원양어선원 편승입국(항) 관련 협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15, 14:00 / 원양노조 사무실
- 참석자 : 공익법센터 어필, 원양노조, 동원산업 등 4개사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원양어선원 편승입국(항) 관련 업무협의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개선 실무위원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18, 14:00 / 병무청
- 방문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외,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외, 해운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관련 업무협의

○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1년 신규대상 선박 선정결과 알림(3.2)

- 씨맥스피셔리(씨맥스101호) 신규선정 / 現 8개사 15척 참여(신규포함)

○ 국적 원양어선 및 운반선 타국 입항사실 확인 가능 여부파악(FMC/3.2)

- 선박이 국내 출항 후 일정기간 타국에 미입항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확인요청
- FMC(조업감시센터)로부터 가능하다는 문서를 접수(3.3)

○ 원양어선 안전관리카드 자료갱신 요청(회원사/3.2)

- 선원정보 및 선박현황 등

○ 원양어선 유류 사용현황 자료제출 요청(회원사/3.3)

- 업종별 연간 총 사용량 및 면세유 수급량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관련 업무추진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기 선정자 장학금 지급 신청 (유자녀장학재단/3.16)

○ 2021년도 EU수출 등록선박에 대한 정기 위생 점검 계획 알림(전회원사/3.10)

- EU 수출 조건에 따라 2년에 1회 위생점검 실시

○ 2021년 해외선원묘지사업 계획서 제출(해수부/3.8)

○ 동아프리카 해역 해적활동발생 우려정보 공유 (회원사/3.12)

- 모잠비크 북부지역에서 해적범죄 증가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가.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추가 통보 (전회원사/3.16)

나. 외국인선원에 대한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안내 (전회원사/3.16)

○ 케이프타운협약 업계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3.31,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담당 사무관 외, 원양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 '21년도 원양선원 해외묘지 관리사업 관련 약정서 체결(해당 한인회/3.23)
 - 확정 사업내용 및 보고규정 등 유의사항 알림
- 임채 및 송환기금 증서 신규발행(경양수산/3.23)
 - 경양수산 경양 8호(구 신라교역 파나룩스), 경양 21호(구 신영53)도입
- 선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협회장, 선원정책위원회위원 재위촉(해수부/3.23)
- 어선의 소각기 관련 현황 조사(회원사/3.22)
 - 소각기 설치현황, 금액지원시 설치 희망여부 등
 - ※ 미설치선박 119척 중 26척 설치 희망
-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지침에 대한 의견조회(남극출어선사/3.23)
 - 동 지침에 따라 구비해야 할 장비 및 안전장치
- 의원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회원사/3.24)
 -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의무 대상확대와 점검결과 월1회 보고규정 신설
-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해적 경계활동 강화 요청(회원사/3.29)
 -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을 벗어난 해역에서 통항 요청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및 의견조회(회원사/3.31)
 - 항만국 검색에 대한 입항신고, 입항허가 및 검색 대상 결정 등 절차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외국인선원 입국일정조정 협조요청(회원사/3.23)
 -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추가통보

(회원사/3.24)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조치(47개국) 안내
-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선원 관리 및 지침준수 철저 요청(회원사/3.31)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ICCAT 패널 2(참다랑어 등) 회기간 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1.3.2~5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영국, 중국, 일본 등 패널2 회원국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내용 : 우리나라 2021년 참다랑어 조업계획 승인 등
- 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1.3.8~12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몰디브 등 IOTC 회원국 / 협력1부
 - 결과 :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임시 보존조치, FAD 관리 보존조치 개정안 부결
- 제3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1.3.8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협력1부
 - 내용 : 참치연승업종 애로 사항 및 지원 방안 등 정부 건의 사항, MMPA 대응방안 협의
- 제1차 참치선망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1.3.9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선망어업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간담회 건의 사항 등 협의
- 제7차 IOTC TCAC(어획할당기준) 관련 업무추진 가. 제7차 IOTC TCAC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16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동원산업, 사조산업, 해외수산협력센터 / 협력1부
 - 결과 : 기존 우리나라 반대 입장 유지 및 필요 시 조업국과 사전 공조
- 나. 제7차 IOTC TCAC 기술위원회 참석
- 기간/방식 : '21. 3. 22-25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몰디브 등 IOTC 회원국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결과 : 연안국 EEZ 주권 주장, 조업국 공해와 EEZ 양립성 보장 주장, 5월 대표단 회의 개최하여 추가 논의 예정
- 제11차 IATTC 보존조치이행검토 특별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1.3.30-31 / 화상회의
 - 참석자 : 에콰도르, 미국, EU 등 IATTC 회원국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결과 : 2019년 국별 보존조치 이행 여부 검토, 위원회 권고 사항 전달

해외협력 2부

-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관련 업무 추진
- 가. 러시아 수산청 한국대표사무소장간 면담
- 일시/장소 : '21.3.4, 14:00 / 토즈 광화문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주무관, 전문관 / 해외협력2부 과장
 - 회의내용
 - 한·러 어업협상 조기개최 요청(러측 4.12~15 예상)
 - 허가장 및 조업일지 등록 간소화 요청 (러측 대리점 활용)
 - 국경수비대 승선 경비 납부 문제 협의 (협상개최이전 납부)

- 조업수역 확대 요청 (국제수산포럼(7월)에서 별도 협의)
- 나. '21년 러수역 입어 어선의 입어준비 철저 당부 (3.8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CFMC 및 조업일지 사전 등록 가능 알림
- 다.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요청 공문 입수(3.11 / 동북극국경수비대, 러수산청)
- 차기 한러위 전까지 20년도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요청 공문 입수
- 라.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안) 의견 제출 요청(3.18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마. 러수역 조업허가장 및 등록 조업일지 대리 수령 위임장 제출(3.19 / 러수산청)
- ※ 연해주 한국변호사사무실 직원활용 대리수령
- 바. 러 모니터링장비등록 신청서류 제출안내 및 신청 알림(3.9, 3.18, 3.19 / CFMC, 공치위원장)
- 사. '21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일지 제작 및 배포 알림 (3.29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제30차 어업위 개최 전 '21년도 러수역 조업일지 사전 제작 및 러 수산청 등록 완료에 따라 조업일지 배포
- 아.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대비 러시아어 통역관 계약서(안) 제출(3.31 / 해수부)
- 한·러협상통역관 계약(권기훈/최근원) 체결(4.8)
- 오징어어업 업무 추진
- 포클랜드제도 영해 내 외국적선 규정 알림(3.4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오징어트롤출어사)
- 제1차 공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3.19, 14:00~16:30 / 부산지부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회의내용
 - NPFC 공치쿼터 설명
 -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대비방안 논의

- 북태평양 협약수역 오피서 승선 논의
- 제6차 남인도양수협정(SIOFA) 과학위원회 참석
 - 기간/방식 : '21.3.22~26 / 화상회의
 - 참석자 : 국립수산과학원, 정일산업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국가별 연간 보고서 발표
 - 과학 데이터 표준화 논의(기밀성, 주요 어종 명확화 등)
 - 취약생태계 분류군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합의
- '21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업무추진
 - 가. '21년도 안전펀드 사업 예산 중 2척분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른 재조사 안내(3.29 / 풍치·오징어 위원사)
 - 나. '21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업계간담회 참석
 - 일시/방식 : '21.3.31,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각사대표 / 해외협력 2부장 외 2명
 - 내용 : 해수부 안전펀드 현황 설명 및 업계 건의 사항 언급
 - 3척 중 2척 건조 예정
 - 세금, 선체 설계부분, 해기사 등 문제 해수부에서 내부 검토키로 함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일부 개정 고시 알림(3.19 / 전화원사)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일부 개정 고시 알림
 - ※ 신규 희망업체(뉴질랜드), 개정된 고시(제7조 3항)에 따라 기존 신청 서류 보완 제출 안내
- '21년도 NAFO수역 쿼터이전 요청(3.8 / 해수부)
 - 쿼터량 : 적어 169톤, 오징어 453톤
 - 한국 쿼터, 에스토니아로 전배 요청 공문 발송

- 국제수산기구 2020년 협상결과 공유 회의참석
 - 기간/방식 : '21.3.19, 09:20~16:3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협력센터, 관련업계 / 해외협력본부장 외 5명
 - 회의내용
 - '20년도 및 '21년도 국제협력수산기구 협상결과 설명
 - NPFC 풍치쿼터 배경 설명
 - CCAMLR 출·입역보고 상세 설명 및 당부
 - SIOFA 이빨고기 조업 의사 표명 요청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
 - CCAMLR 협약수역 입·출역 전 후로 '24시간 내 보고 규정 입수'(3.17 / 해수부)
 - 이행위에서 논의 전까지 3번 보고(입역전 1~24시간 내, 입역후 24시간 이내, 출역후 24시간 이내) 요청
 - 킹스타호 VMS 일시정지 내용입수(3.18 / 해수부)
 - 선박 수리로 인하여 2.18~3.10, 21일간 킹스타호 VMS 일시정지 내용 사무국에 알린 내용 입수
 - CCAMLR 어구유실 업계 의견 조사 및 제출 (3.30 / 남빙양위원사, 해수부)
 - 어구유실 관련 남빙양 저연승 조업현황 및 부수 어획 폐기처리 현황 설명
-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3.19/ e나라도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제4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수산물박람회 개최알림(3.22 / 북양·대구·풍치·한리위원사)
 - 나. 리수역 모니터링센터 통신장비 등록완료 알림 (3.31, 4.9 / 풍치위원사)
 - 다. '20년도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및 납부완료 알림(4.1, 4.2 / 리 수산청, 동북극국경수비대)

라. 해상용 전재저울 인증서 및 러문번역본 제출
알림(4.9 / 러수역출어사)

○ 러시아 수산 기업 외국인 투자 요건 강화 법안
추진 동향 알림(3.30 / 한·러위원회)

- 외국인 지분율이 25% 이상이 될 시 「외국인 투자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 추진내용 알림(現 : 50%)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관련 북태평양 공치
붕수망 옵서버 승선 조사 관련 과학원 의견 입수
및 질의(3.26 / 수과원)

- 과학원은 NPFC 옵서버 승선 관련 다수 조업선에
옵서버가 승선 및 편승하는 것은 과학 조사 수행
안전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샘플 채취를 제안
하였고, 국제적인 샘플링 채취에가이드라인 질의

○ '21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수요 조사
결과 추가제출(3.26 / 해수부)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 고시 개정
에 따른 추가수요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해외 현지법인 영업
허가서 ③ 어업허가서 ④ 지분 확인서 ⑤ 선박
국적증서 ⑥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⑦ 어업 계약서
⑧ 실제 조업 확인 서류

※ 해수부 신규배정 완료(4.5 / 해수부)

부산지부

○ 노사위원장과 부산지사장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3.31, 12:00/ 암남동 “송도공원”
- 참석자 : 박길주 노사위원장, 동원산업, 신라교역,
동원수산, 한성기업 지사장,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코로나로 인한 선원 격리비용 정부지원 방안 요청

· 외국인선원 운반선 편승 및 하선 문제 대책 건의

· 참치연승업계 지원 요청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7개사 593건('21.3.1-3.31)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4척(참치선망1, 참치연승3)
- 출항 : 5개사 7척(저연승1, 참치선망1, 참치연승5)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IOTC 황다랑어 특별세션(SS04) 참석

- 일시/장소 : '21.3.8~12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
(의장),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IOTC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결의
19/01 등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제7차 IOTC 할당량기준 회의(TCAC07)

- 일시/장소 : '21.3.22~25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IOTC 할당량 기준 수립을 위한 할당 체제
요소, 기간, 자격 등 논의

○ 국제수산기구 2020년도 협상결과 공유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3.19/영상회의(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지원),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협회, 업계, 협력센터 양재걸, 원태훈, 김선경,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협상결과 공유, 향후 보완점,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교환

○ 일본 동향 모니터링, 자료 조사

가. 방사능 처리수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 일본 어민이 일본 정부(환경성)에 방사능 처리수 처분 관련 결단 촉구
-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UN 성명 번역, 일본 외무성 대응 조사
- 일본 정부(경산성)-IAEA 온라인 회의 내용 정리

나. 일본 해양영토 동향 모니터링(해양영토과)

- 조어도 순시선 일시 항행 정지 관련 정보

○ 2020 연간백서 발간, 배부처 우편 송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 PDF 파일 게재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가. 원양산업뉴스 38건 업로드

나. 2021년도 상반기 국가정보 업데이트(태국, 바누아투, 기니비사우, 기니, 브루나이)

다. 1분기 전문가 특별기고 게재(3.26)

- 저탄소 친환경 원양산업을 위한 추진방향(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주 센터장)

라. 정보화사업 용역 수행업체 대상 1분기 보안점검 실시(3.24)

- 일시/장소 : '21.3.24, 16:00/ 대전 유성 휘스커 사무실

- 참석자 : 휘스커 최택진 대표 외 3명, 협력센터 서규혁

- 내용 : 보안 이슈 점검 및 보안 가이드라인 전달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가, '20년 키리바시 사업 관련 자문회의 개최(3.18)

- 일시/장소 : '21.3.23/ 비대면(Zoom 화상회의)

- 참석자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이호생 책임연구원, KMI 한덕훈 ODA 센터장, KDS 전홍민 상무이사,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어시장 설치사업 코로나-19관련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자문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조사원 채용 공고(3.16)

나. 2021년 원양산업 실태조사

-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용역 계약(3.9)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3.18/협력센터)

○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가. '21년도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업계 2차 수요조사(3.2, 3.12한)

- 1개사(정일산업) 응답 제출(전문교육대상국 : 파푸아뉴기니, 정보조사대상국 : 모리타니)

나. '21년도 해외투자정보조사 계획 수립

- 선정국 : 파푸아뉴기니
- 조사계획 : (4~8월) 자료수집, 자문처 확보 / (9~12월) 조사보고서작성





공치양념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297Kcal
- 재료 : 공치 : 5마리, 상춧잎 : 5장,
레몬 : 1/4개, 파슬리 : 조금,
녹말가루 : 2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공치 내장 빼기** : 신선한 공치를 골라 머리와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낸 뒤에 물에 재빨리 헹군다.
- ② **가시 발라내기** : 물기를 뺀 공치는 칼로 끝까지 갈라 고르게 편 다음 가시를 모두 발라낸다.
- ③ **녹말가루 묻혀 지지기** : 손질한 공치는 먹기 좋게 2-3토막으로 잘라 앞뒤로 녹말가루를 묻힌 다음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 ④ **양념고추장 발라굽기** : 공치가 노릇노릇하게 되면 그 위에 양념고추장을 발라 약한 불에서 타지 않게 굽는다. 윗면에 양념간이 배면 뒤집어서 다시 양념고추장을 발라 굽는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3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주요소식

- 마키 살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업의 활성화를 강조. 전통 영세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업종사자들과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지시.
- 다카르항에 집중된 교역량을 분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Ndayane 심해항구 공사 계획을 발표 (6월 착공) 동 항구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수로, 부두 등이 건설될 예정.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황다랑어	10kg 상	1,975
	3.4kg 상	1,145
	1.8kg 상	1,060
눈다랑어	10kg 상	1,102
	3.4kg 상	1,102
	1.8kg 상	1,060
가다랑어	3.4kg 상	1,102
	1.8kg 상	1,060
	1.5kg 상	933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421 유로 / MT	'21.3.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수산업 동향

- 소형 기지선(연승)의 경우 피지 연근해는 회당 1~1.2톤 정도, 투발루 근해 중국선박은 회당 1.5~2톤 정도 평균어획을 보임.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92/ MT	'21.4.9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주요소식



변경대
명예해양수산물관

- 미얀마는 양식사업의 확장을 국책 사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중. 특히 Thaton 부화장에서는 양어장에 치어를 무상제공 하기도 하며,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생태계 방류도 진행함. 한국은 ODA사업으로 해수면 양식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중.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5월 16일까지 블루코드 공고, 모든 공공 단체, 사업체, 학교, 대중 교통은 05~24시까지 영업 제한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단, 종교(교회)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스타키스트 참치 공장 24시간 가동가능
- 미국령사모아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은 2021년 5월 16일까지 전면 중단
- 외국인은 필수인력으로써 사모아의 허가가 있을 시, 송환항공편으로 입국 가능
- 모든 선박들은 입항전 최소 72시간 또는 마지막 기항지에서의 코로나19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보유해야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을시 선장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승무원이 있으면 14일전 보고해야 함(모든 여객선은 입항 중단)
- 16세 이상 백신 접종비율은 55.2% 이상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450	
눈다랑어	라운드	1,250	
가다랑어	라운드	1,2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16(gallon)	'21.4.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 어황

- 1~2월 2020년에 비해 1/3 수준의 어획율을 기록하였으나 3월 들어 작은 사이즈 오징어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획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500	Sea Jho Co.Ltd
	L	3,350	
	M	3,200	
	2M	2,950	
	S	2,750	
	2S	2,4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Z	MGO \$743/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4.6
	LMFO \$63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주요소식

- 미국정부가 가나와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카누식별카드(CIC)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통어선 생계 보존을 위해 수산 자원유지 노력 추진



-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었었던 중국 어선 선원 14명(중국6, 인니3, 가봉1, 나이지리아4) 한달만에 석방. 사건직전 터키어선 피랍. 기니만에서 2020년 전체 해양 납치사건 135건 중 130건이 발생(96%)
- 감비아에서 Sea Shepherd의 도움으로 불법어업을 행하던 4척의 트롤어선 나포. 나포한 대부분의 어선이 중국국적 또는 중국선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ScienceDirect.com의 보고서에서는 어업에 있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정부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2018년에 세계 총액의 약 21%인 72억 달러를 지불 / 1위)
- 중국 어업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대학의 Mallory 교수는 가장 많은 지원인 연료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어선개조수리 및 신조 등에도 중국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주장.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선들이 IUU어업을 통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국에서는 어류 개체수 회복을 위해 엄격한 어업금지 실시와 파괴적인 어획 관행을 줄이고 있음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150	
	10kg 하	900	
가다랑어	3.4kg 상	1,250	
	1.8kg 상	1,200	
	1.8kg 하	1,150	
	1.5kg 하	9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565/kl MGO	'21.3.31	육상급유
SK B&T	\$595/kl MGO	'21.3.31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1년 수출 전망

- 인니 정부는 '20년 수산물 수출량 1,262천톤, 수출액 523백만 달러이며 각각 6.6%,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이는 2020년 정부 목표액 5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올해 수출목표액은 60억3천만 달러
- 2020년 주수출 품목은 새우20억4천만 달러(39.21%), 다랑어/가다랑어 7억 2,400만 달러(13.92%), 연체어류 5억 9백만 달러(9.79%)계/꽃게류 3억 6천7백만 달러(7.05%), 해초류 2억 8천만 달러(5.2%)
- 수출량으로 보면 새우 239,230톤(18.09%), 다랑어/가다랑어 195,170톤(15.5%), 해초류 195,570톤(15.5%), 연체류 140,040 (11.1%)의 순서
- 해양수산물 수산물 경쟁력강화 총국장 Artati Widiarti씨는 올해도 새우, 해초류, 다랑어, 가다랑어, 연체어류 종류가 수출을 주도할 것이며, 해초류 수출에 있어서 가공품수출 증대와 Lobster 양식 생산품의 수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나. 정부 외국건조어선의 조업허용 검토중

- 인도네시아 대형어선 건조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동의와 무역부의 수입허가를 전제로 외국건조어선의 조업 허용 검토 중
- 어족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동부에 국립수산물저장소 건설계획으로 기초 인프라 마련 중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페루수역 2021 대왕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 발표

- (조업기간) 총 쿼터 소진시까지 또는 12월 31일까지
- (총 어획 허용량) 580,000톤

- 지난 수년간 쿼타 대부분(99.9%)을 페루 영세 조업선, PESQUERA ARTESANAL이 어획해 왔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계획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발표

나. 2021년 페루 어업 및 양식 박람회 개최 (EXPO PESCA & ACUIPERU 2021)

- (기간) 9월 8일 부터 9월 10일까지
- (장소) CENTRO CONVENCIONES JOCKEY PLAZA

다. 일본 국적의 참치 연승선박 2척 동향

- (KAIO MARU 108) 4월 3일 입항, 07컨테이너 하역 작업 완료 및 베이트 1컨 선적후 출항 대기 중
- TOEI MARU 8 : 4월 5일 입항 및 APM 부두 접안 예고. 어획물 하역과 베이트 선적 작업 예정

라. 코로나 동향

- 확진자 1,573,961명, 사망자 52,625명
- 백신 접종(시노팜 및 화이자) 1회 접종자 573,505명, 2회 접종자 283,988명
- (외국인 입국제한)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입국 및 경유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은 계속 금지 상태
- (시설별 인원 제한) 마트, 시장, 약국, 은행은 50%, 식당·서점·박물관은 40%
- (야간 통행 금지) 21:00~04:0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47 / 갤론	'21.4.3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연국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모잠비크 주요소식

- '21년 수산물 생산 48만톤 목표
- 새우조업시작(4.1~10.30)
- 어획량 감소에 따라 수산물 수출이 '19년 대비 56% 감소
- 카보 델 가도의 북부 지방에서 분쟁 확장
- (코로나) 22:00~04:00 통금 적용

나. 남아공 주요소식

- 3월초 해양폭염에 따라 급격한 수온 상승과 이후 차가운 해류의 팽창으로 인한 열 충격으로 각종 해양생물자원이 폐사하는 사건 발생
- "환경, 임업 및 수산부"(DEFF)는 2021년 4월 1일 부터 "임업, 수산 및 환경부"(DFPE)로 명칭이 변경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Beira	MGO \$692 / MT	'21.4.3
Durban	IFO 380 \$550 / MT MGO \$646 / MT	'21.3.1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생선 DHA,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에 이점 제공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

3월 18일 미국 임상영양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 중 참치와 같은 DH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뇌 보존력이 더 높고 뇌 미세출혈(microhemorrhages)도 더 적다고 한다.

이 연구는 스페인 Pasqual Maragall 재단 산하 Barcelona Beta Brain 연구 센터(BBRC)의 과학자들이 la Caixa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팀은 다른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DHA는 주로 참치, 정어리, 고등어와 같이 지방이 많은 생선에 함유량이 많으며 인지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는 DHA 함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DHA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생선의 오메가-3는 호두, 콩에 함유된 오메가-3와 유형이 다르다.

이 연구는 인지 장애가 없는 45~75세 참가자 34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인지, 뇌 영상에 대한 임상실험 및 생활 습관 설문 조사를 받았다.

이 연구의 제1저자이자 BBRC의 연구원인 Aleix Sala 박사는 알츠하이머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에 걸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생선의 섭취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혈관상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2인분 이상의 지방이 많은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다음 연구에서 훨씬 더 큰 샘플 그룹을 포함해 다른 생물학적 표지자와 최대 20가지 지방산 섭취와의 연관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8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안정적 유지

어획량은 소폭 감소

만타항 가다랑어 가격은 지난 몇 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올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수역 가다랑어 어획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동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어획이 좋았다. 최근 에콰도르 만타항 냉동 가다랑어 원어 거래 가격은 올해 초 1,700 달러 보다 100달러 하락한 톤당 1,600 달러로 지난 몇 주 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가격 동향은 지난해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1월 중순에 어장 폐쇄(veda)가 종료되면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계절적 하락 이후 상승해 통상 3월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소식통은 가다랑어 어획량이 소폭 하락해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항구에 하역되는 양은 줄었지만 에콰도르 캔 가공업자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충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9일자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2019년 가다랑어 어획 최대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

남태평양위원회(SPC)에서 발표한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2019 개관 및 자원 현황’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에서 선망선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 이후 황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했다.

WCPFC 수역 참치 어업은 2019년 299만 7,309톤(추정치)을 어획해 기록적인 해를 보냈다. 선망선 양륙량은 210만 8,012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어획량의 70%를 차지했다.

선망선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선망선 척수와 크기의 증가로 수십 년 동안 증가해 2005년 처음 100만 톤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 2018년 대비 10% 증가한 204만 5,97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체 참치 어업 어획량의 68%이다.

반면, 선망어업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7년 49

만 8,822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했다. 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은 34만 9,359톤으로 2018년보다 8% 감소했다. 올해 상황이 더 심각해 방콕 캔 가공업자에게 공급되는 황다랑어 원어가 급감했다. PNA 국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선망선 척당 대형 황다랑어(9kg 이상) 일일 어획량이 1톤까지 감소했다. 반면 선망선들은 FAD를 사용해 가치가 낮은 미성어를 더 많이 어획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 분포를 살펴보면 황다랑어 어획은 PNG, 솔로몬 제도 수역과 주변 공해 등 서쪽에 집중되었으며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수역과 공해에서도 일부 어획되었다. 반면 가다랑어는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 군도, PNG 수역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7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1,400 달러 유지 상승하는 운영비용, 낮은 수요

태국 가다랑어 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중계업자와 참치캔 가공업자 간의 밀고 당기기로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초 이후 태국 가다랑어 시장의 분위기는 큰 변화가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3주 전과 동일한 톤당 1,400 달러이다. 대부분의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1,400 달러 수준 구매에 관심이 거의 없고 실제 최소 100 달러 낮게 입찰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다. 당분간 중계업자들은 캔 가공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현재 가다랑어 가격 추세는 2018년 이후 관찰된 패턴(2월부터 3, 4월까지 급격하게 상승)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3월경 가다랑어 어가는 톤당 1,550 달러였으며 동 가격을 한 달 이상 유지했다. 일부 소식통은 시장 분위기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콕 캔 가공업자들은 원어 수요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현재 태국 항구에 도달하는 원어가 많지 않다고 한다. 한편, 유가 및 운임 상승으로 선주의 운영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24일자



2019년, 전 세계 참치 어획량 20만톤 증가

인도네시아,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16% 차지

FAO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참치(유사종 포함) 어획량은 730만 3,584톤으로 2018년 대비 20만톤 이상 증가했다. 2015년 650만톤에 비해서는 5년 만에 80만톤 증가했다.

황다랑어와 가다랑어는 각각 2015년 약 137만톤, 270만톤에서 2019년 160만톤, 3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어선은 총 116만 3,421톤을 어획해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16%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참치 선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선단 중 하나이며 주로 인도양과 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따르면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인도네시아 선박 척수는 선망 151척, 연승 347척이다. 거의 모든 선망선은 길이가 24m 이상이다.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A) 수역에 등록된 인도네시아 어선은 가다랑어 채낚기 13척, 선망선 9척이다.

인도네시아에 이은 참치 어획량 2위 국가는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의 50% 미만인 53만 754톤을 어획했다. 필리핀 어선단은 중서부태평양 및 인도양에서 조업하고 있다. 대부분의 필리핀 참치 어선은 PNG EEZ에서 조업하고 있다.

베트남, 에콰도르, 대만, 미국, 키리바시, 멕시코, 페루, 마셜 제도는 2019년에 참치 어획량이 증가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2018년 12만 86톤에서 2019년 17만 2,939톤으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어획량이 감소한 국가는 EU, 한국, 일본, 이란, 몰디브, 세이셸, 중국, 인도, PNG이다.

한편, 2019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EU, 에콰도르, 대만, 일본, PNG, 키리바시, 미국,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베트남, 마셜 제도, 세이셸 순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12일자

중국 냉동 참치 원어 수출 증가

2020년 수출량 111,000톤, 전년 대비 17% 증가

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냉동 참치 원어 수출은 2020년 13만 4,000톤으로 2019년 11만 1,000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수출량의 45%가 3~5월에 수출되었다. 3~5월 수출량만 보면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참치 원어가 거의 태국으로 수출되었다. 태국 수출량은 6만톤으로 2019년 3만 5천톤

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과 스페인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일본으로 수출은 약간 감소했고 필리핀 수출은 60%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은 만톤 가량으로 2019년 5,000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란과 러시아로 수출은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30일자



일본 눈다랑어, 황다랑어 어가 상승 공급 부족이 원인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하락했던 일본 참치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냉동 눈다랑어 시세 지표 중 하나인 인도양 대만 선박 일선매(배떼기 거래) 기준 3월 중순 대형 눈다랑어(40톤 이상) 가격은 750엔으로 50엔 상승했다. 이는 조업 선박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에서 잘 팔리는 가격대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눈다랑어 시세 하락에 따라 대만 어선이 휴어를 결정해 냉동 눈다랑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선박 등은 대형 눈다랑어 가격이 100엔 상승한 700엔으로 책정되었던 지난해 10월에 출어를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격 상승에 따라 출어하기 위해 선원을 다시 모집하더라도 7월 이후 출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어획물이 일본에 도착하는 시점은 연말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참치 반입량은 4월 1만 500톤이 예정되어 있어 숫자상으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관

계지는 『1만톤 초과 반입은 4월까지이다. 5월부터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계속된 냉동 황다랑어 어획 감소도 냉동 눈다랑어 부족을 가속시켰다. 황다랑어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렴한 희감으로 정착해 소비가 증가했다. 황다랑어 재고가 단숨에 감소한데다 공급이 줄어들어 중·소형 눈다랑어 판매가 좋아지고 있다.

현재 황금연휴에 판매할 원어 사재기가 한창이다. 도요스 시장의 냉동 대형 눈다랑어(서부 태평양) 입찰 가격은 중간가격 기준으로 3월 1일 840엔에서 시작해 3월 말 870~880엔 전후, 4월 들어 900엔대로 상승했다. 입찰 최저가도 3월 1일 570엔, 3월말 650엔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가격 변동은 낮은 단가의 살코기 중심으로 지방이 많은 부위는 움직임이 여전히 둔하다. 따라서 이번 상승 시세를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8일자

세이셸 외국인 선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프랑스 참치 선망선 선원 2명 사망 계기

세이셸 보건 당국은 세이셸 수역 조업 외국 선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Sapmer사의 참치 선망선 Belle Isle호에 승선한 선원 2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 다른 선망선 Dolomieu호에서도 확진

자가 발생해 두 선박은 현재 세이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세이셸의 현재 코로나19 동향은 확진 4,395건, 회복 4,091명, 사망 24명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8일자



충격적인 넷플릭스 다큐, 잘못된 정보 많아 뉴욕타임즈, 어둡고 음모적인 사고에서 요점 잠시 드러나

넷플릭스는 해양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과 어업이 전 세계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Seaspiracy를 3월 24일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유익한 시선은 감독의 음모적 서술로 인해 잘 전달되지 않았다. 참치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지만 다큐 제작자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다큐는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및 TV 프로그램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Tabrizi 감독은 참치 분야를 여러번 다뤘다. 그는 돌고래의 죽음에 대해 다루면서 일본 어부들이 고래류가 다른 어류를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돌고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감독은 참치 선망선을 보여주며 돌고래를 죽이는 일본 어부들을 참치 분야에 묶었다.

또한, 감독은 일본 미쓰비시 본사에 잠입해 『미쓰비시는 왜 멸종 위기에 처한 중(참다랑어)을 말살하고 있으며 그것이 돌고래를 죽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었지만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그는 EU와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외국 어선들이 자원을 약탈하고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선망선이 잡은 상어와 가다랑어를 보여준다. 그는 『이 선박은 떠다니는 도축장과 비슷하

다』 고 말했지만 촬영된 어선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는 상어에 관한 RFMO 규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해양관리협회의(MSC) 및 dolphin-safe와 같은 국제 인증을 다루며 Callum Roberts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 교수는 『MSC 인증 어업은 놀라울 정도의 혼획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들은 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해 무시하고 있다』 며 『캔에 붙여진 라벨은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다큐에 출현해 Dolphin Safe가 붙여진 최종 제품이 실제 돌고래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시인한 지구섬연구소(EII)의 국제 해양 포유류 프로젝트(IMMP) 부국장인 Mark Palmer는 다큐에 나온 부분은 그가 언급한 문맥에서 벗어났고 인터뷰의 핵심 부분을 생략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다큐의 요점은 어둡고 음모적인 사고의 잃어버린 바다에서 수면 아래로 사라졌기 전 잠시 드러나는 것 같다』 고 보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25일, 30일자, IntraFish, 2021년 3월 29일자

모리셔스 참치캔이 인도시장 정복?

무역협정으로 참치캔 7,000톤 무관세 수출 가능

모리셔스의 참치 수출업체는 포괄적경제협력 동반자협정(CECPA) 발효에 따라 인도 시장 접근 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참치캔 7,000톤(20피트 컨테이너 400개분)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모리셔스는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인도인은 보존 식품의 주요 소비자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인도에 참치캔을 수출하는 것은 꽤 큰 사업이 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6일자



완전 양식 참치 육종 개량

마루하니치로와 수산연구·교육기구 협력 합의

참다랑어 완전 양식은 일본 수산 기술 연구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일본의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와 수산청 산하 수산연구·교육기구는 지난 3월 29일, 완전양식 참다랑어 육종 개량을 위한 기초·응용 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에 합의했다.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와 수산청 산하 수산연구·교육기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참다랑어 완전양식에 대한 연구는 인공 종묘 개발, 채란 기술 향상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연구·교육기구는 “생존율과 맛 향상을 위해 채란 기술력을 높여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완전양식 기술을 확립한 수산연구 교육기구는 일본 국내 유일의 참다랑어 친어용 육상수조(나가사키시) 및 광대한 야외 사육 시설(카고시마 현)을 보유, 완전양식 참다랑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루하니치로는 2010년 민간기업 완전양식 참다랑어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출하를 개시했으며 '20년에 마루하니치로 양식기술 개발 센터를 카고시마 현 남 사츠마시에 설립한 바 있다.

합의한 내용은 육종 개량을 위한 완전 양식 참다랑어 교배, 친어 양성 기술 개발 연계 등이다. 채란 기술 향상, 기타 노하우 공유, 인적교류도 도모한다.

수산연구 교육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은 일본 근해에서 채포된 천연 종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완전양식 기술로 인한 인공 종묘 대량 생산에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의 인공종묘 생산(자연 채란)은 시기도 한정되어 있고, 생존율도 낮은 상태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30일자

선망선, 2월에도 PNG에서 더 많이 조업

PNG 일일 어획량은 7톤 감소

PNA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PNA EEZ 조업일수(잠정치)는 3,200일로 전월 3,381일에 비해 감소했다. 2월 참치 총 어획량은 10만 9,693톤으로 13% 감소했다.

PNA 수역 어선들은 올해 초부터 서부 태평양에서 더 많이 조업했다. 2월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은 PNA 전체 조업 노력의 45%를 차지해 전월(46%)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월 PNG 수역 선망선의 일일 어획량은 32톤으로 전월 39톤에 비해 7톤 감소했다. 여전히 일일 어획량이 최고 수준인 마셜제도는 전월에 비해 10톤 가량 감소했다. 토켈라우는 38톤에서 20톤

으로 하락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참치 어획량 감소 추세에 따라 전재 작업도 줄어 들고 있다. PNA 항구에서 선망선이 운반선으로 전재한 어획물 총량은 2월 4만 9,382톤으로 1월 5만 7,550톤에 비해 감소했다. 전재량은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다. 파푸아뉴기니의 Rabaul, Manus, Madang, Wewak 항구에서 전재된 물량은 2만 5천톤으로 PNA 전체 전재 활동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마셜제도의 마주로항에서 전재되는 양은 매우 적었다. 2020년 중반부터 전재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31일자



중국, 남태평양 원양어업 8년 만에 150% 증가

2019년 총생산량 217만

중국의 참치 및 기타 원양 어업은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생산량으로 보면 2019년에 정점을 찍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 원양어선의 양륙량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총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00만톤 이하에서 2018년 2백만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생산량은 217만톤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 선단을 보유한 중국은 향후 수년 간 참치 어획량을 늘릴 계획이며 샤먼과 같은 주요 도시에 가공공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EU의 자율할당관세

(ATQ)를 활용해 EU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량은 오징어 19.94%, 참치 19.53%, 기타 60.53%이다.

중국 뉴스 사이트 Finance East Money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남태평양 수역에서 참치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남태평양 어획량은 2012년 17만 1,000톤에서 2019년 150% 증가한 42만 3,800톤을 기록했다. 중국 원양어업 총생산액은 2012년 132억 1,000만 위안에서 2018년 262억 7천만 위안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은 243억 5,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30일자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 감소

황다랑어 성체 어획 침체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PNA 자료에서 1월보다 2월 참치 어획 노력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몇 주안에 가다랑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의 2월 어획량은 10만 9,693톤으로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이후 월 어획량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에 속한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들의 2월 조업일수는 1월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어획량은 1월과 동일한 평균 30톤 수준을 유지했다. 선망선의 일일 어획량은 지난해 12월 35톤 가까이 도달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몇 주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현재 톤당 1,400 달러인 가다랑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다.

FAD 사용 선망선은 2월에 9kg 이하의 황다랑어를 전월에 비해 더 많이 어획(1.5톤/일⇒2.3톤/일)했으며, 9kg 이상의 고가 황다랑어는 하루 1톤밖에 어획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이 급락한 이후 2019년~2021년의 침체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30일자



일본, 2020년 참치 수입 감소

눈다랑어는 증가

2020년 선어·냉동 참치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1% 감소한 18만 673톤이었다.

냉동물은 눈다랑어가 15% 증가한 반면, 황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참다랑어는 감소했다. 코로나 19의 유행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가도 하락했다.

〈참다랑어〉

2020년 수입량은 30% 감소한 3,500톤이었다. 선어는 30% 감소한 3,083톤, 냉동은 40% 감소한 411톤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입이 지연되었다. 도쿄 도요스 시장 도매 관계자에 따르면 아일랜드산의 반입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아일랜드는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쿼터 증가로 일본에 더 많은 양을 수출했다.

도요스 시장 관계자는 『올해 입고가 순조롭다』며 올해 재고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식 참다랑어는 시세 하락으로 신규 취급하는 슈퍼가

증가했다. 재고는 지난해 말까지 거의 소진되었다. 현재 지중해산의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입량은 지난해 보다 약간 많은 정도로 올해 수요에 비해 조금 부족한 분위기이다.

〈남방 참다랑어〉

2020년 수입량은 6% 감소한 1만 892톤이었다. 양식산은 주로 회전 초밥이나 슈퍼 등에 판매된다. 올해 수입량은 순조롭게 소화되고 있다. 한편, 주로 음식점에 공급되는 자연산은 가격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요스 시장 도매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40%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다랑어·황다랑어〉

2020년 수입량은 눈다랑어가 13% 증가한 6만 2,337톤, 황다랑어가 4% 감소한 4만 6,097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30일자





ISSF: RFMO는 어획 관리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참치 23종 중 7종만 합격점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참치 자원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어업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RFMO 전체에 걸쳐 몇몇 참치자원의 관리 규칙은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

‘MSC 기준에 따른 글로벌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용 참치 23종 가운데 남획을 피하고 있는 종은 7종뿐이다. MSC의 원칙 중 두 가지인 지속 가능한 어류 자원(P1)과 효과적인 어업 관리(P3)에 대해 측정되었다. 부수어획과 같은 환경영향에 대한 원칙(P2)은 고려하지 않았다.

원칙1(P1) 기준으로 ISSF는 7개 종에 합격점(전체 80점 이상)을 줬다. 대서양 3종-북방 및 남방 날개다랑어, 동부 참다랑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평양에서는 서부 가다랑어, 남부 날개다랑어, 동부 황다랑어 등 단 3개만이 합격점을 받았다. 인도양은 가다랑어만이 종합 합격점을 받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주로 어획통제규칙(HCR)과 어획 전략(harvest strategies) 점수가

저조해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눈다랑어는 어획 사망률 감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눈다랑어는 2016년부터 HCR이 채택되었지만 어획 사망률을 낮추고 어획량 한도를 줄이는 강력한 규제 적용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지중해에서 날개다랑어는 HCR과 어획 전략에 모두 낙제점(60점 미만)을 받았고, 인도양에서는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가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황다랑어의 경우 RFMO가 쿼터 삭감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칙3(P3)에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를 제외한 나머지 RFMO가 모두 8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IATTC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포함한 7개 성과지표 모두 합격 점수를 받은 유일한 RFMO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17일자

호주 업체, 고칼슘 참치분말 캔 출시

참치 뼈 분말 함유, 칼슘 일일 권장 섭취량 100% 충족

Simplot사 소유의 John West사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동사의 참치캔 제품이 ‘일일 칼슘 필요량의 100%’를 충족한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John West사는 호주 참치 시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군은 샘물(spring water), 칠리, 레몬과 간 후추, 올리브 오일 함유, 토마토와 양

파, 태국 레드커리, 총 6가지 제품이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칼슘 공급원으로 참치 뼈 분말이 첨가되어 성분의 4%를 차지했다. 한 캔당 칼슘 함유량이 838mg으로 성인 평균 권장 섭취량을 100% 충족한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3월 11일자



태평양 연안국, 참치 확보 위해 EEZ 고정 노력 해수면 상승에 따른 EEZ 축소 대비

태평양 연안국들은 지구 온난화가 유발시키는 해수면 상승으로 참치 자원 보유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PNA 국가를 포함해 많은 참치 자원 보유국들이 EEZ를 영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터넷 신문사인 BD News는 남태평양위원회(SPC) 회원국들이 유엔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모든 외딴섬들을 조사하여 지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높은 해수면(거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으로 인해 섬을 떠나게 되면 섬은 암석으로 강등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조문을 재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SPC에 따르면 키리바시, 마셜 제도, 니우에, 사모아, 투발루 등은 전통적인 해도 대신 지리상 좌표를 사용하여 EEZ를 규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의 David Freestone 교수는 이러한 국가들이 EEZ를 공식적으로 고착하기 위해 해도의 업데이트를 중지하면 선박 항해와 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구들이 태평양 연안국의 EEZ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2018 결의안에 '해수면 변화로 인해 해안선의 지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 모든 EEZ에 대한 계산을 다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12일자

스페인 통조림 업계, Nutri-Score 문제 제기 영양 라벨링 시스템, 참치 영양 제대로 반영 못해

EU 위원회는 Nutri-Score 라벨링 시스템의 의무 도입 잠정일을 2022년 말로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참치 및 수산물 가공 산업은 이 제안에 분노하고 있다.

Nutri-Score는 특정 식품의 영양적 가치 평가를 목표로 하며 신호등 시스템(색상 코드)을 기반으로 한다. 등급은 판매되는 제품 100g에 대한 영양성분표시 자료를 사용하여 A(최고)부터 E까지 매겨진다. 스페인 참치통조림협회는 Nutri-Score가 참치 통조림과 같은 통조림 제품, 어류 보존 제품에 적용하기에 정밀도가 부족하며 높은 단백질 함량, 최적의 지방질, 비타민 및 높은

미네랄 함량 등 제품에서 극히 중요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스페인 참치 통조림 또는 유사 제품의 점수를 밝히지 않았다.

Atuna가 웹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Nutri-Score 시스템을 적용한 참치 통조림 제품은 대부분 B 또는 C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Nutri-Score가 의무화되면 모든 참치 제품은 라벨을 포장 전면에 붙여야 한다. 소비자는 참치 제품에서 B나 C 등급을 보게 될 것이고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참치의 건강상 이득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강조되어 왔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19일자



테스코의 야심찬 참치 조달 전략

인증제도 역할 여전히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접근 방식 필요

영국 거대 소매 업체인 테스코는 참치 조달에 있어 처음으로 Seascope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업계가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테스코는 새로운 접근법 하에 자사 취급 참치 전반이 2025년까지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10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사 브랜드 공급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참치 공급망 안에서 새로운 실사 과정(due diligence processes) 도입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Seascope은 세계참치연맹(GTA), NGO Tuna Forum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MSC 같은 기관의 기존 인증평가를 포함하여 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기존 도구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일치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지만 MSC 인증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현존하는 인증의 주요 기준은 단일 어종이나 어업에 너무 특정적이다. 그리고 본래의

자원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최대지속생산량(MSY)을 기반으로 한다.

Seascope 접근법의 핵심 구성요소는 어류 자원의 건강도를 알려주는 SSB40(지속가능한 생물 자원량) 측정을 업계 전반에 도입하도록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Seascope 접근법 안에는 어획 사망률을 낮게 유지, 혼획 저감 조치 이행, 어류 취급 및 모니터링을 최고 수준(best practices)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테스코는 Seascope을 통해 추적성, 투명성, 전재, 장비 관리 및 쓰레기 관리와 관련하여 NGO의 최고 수준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예방적 어획 통제 규칙(Harvest Control Rules) 또는 어획 전략(harvest strategies), IUU 어업 관리, 해양보호구역(MPAs)을 포함하여 탄탄한 어업 관리를 위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12일자

IOTC 특별회의,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나

6월 연례회의로 결정 연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특별회의는 황다랑어 자원 재건 계획의 다음 단계에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원국들은 다가오는 6월 연례회의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생계형 어업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부족, 전반적인 어획량 감축에 대한 의지 부족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업종별 감축에 동의하지 못했고 일부 그룹은 어획량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유영(Drifting) FAD도 합의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이다. EU와 몰디브가 서로의 제안 사항을 협의하여 선망선 어획량을 20% 줄이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올해 12월 이전에 새로운 자원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 연례회의에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수 있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3월 12일자



우루과이, RFMO 창설 위해 주변국과 협력 위해 외국어선의 남획 문제 해결 위해 지역 전선 형성에 노력

Jaime Coronel 우루과이 수산자원 국장은 지난 해부터 브라질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창설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통제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 주장했다. 남대서양 국제 해역의 관리 방식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Coronel 국장은 우루과이 외무부가 브라질과 남서부 대서양 수역 RFMO 창설 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FMO 창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관세 동맹인 Mercosur 내에서도 제기되었었다. Coronel 국장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진전되려면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oronel 국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2월 UN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에서 RFMO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없지만 다른 모델이 협의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아직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대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안한 바 없다. Coronel 국장은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에게 RFMO의 대안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 가량 아르헨티나와 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China Dialogue Ocean, 2021년 3월 31일자

7월 상파울루/산티아고-포클랜드 취항 가능?

Latam사 7월 취항 고려,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항공 산업 관련 소식을 다루는 사이트인 Aviacionline에 따르면 칠레, 브라질, 포클랜드 제도 간의 상업용 항공 연결이 7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이트는 항공 및 여행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Cirium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Latam Brazil사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발 주 1회 취항 항공기의 출항을 7월 5일로 예정했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 767-300으로 총 221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Latam사는 『첫 비행 일정에서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경유하는 일정이 분명히 포함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포클랜드 제도 항공편의 재개를 포함하여 운항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있다』 며 출항 예정일이 되면 『회사는 기존의

여행 제한과 국가 간의 협정을 존중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선 취항에 제한을 두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Ezeiza 공항에 항공기 운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르도바에서의 중간 기착은 불확실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클랜드와의 항공망은 국내선이며 ‘7월까지 제한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viacionline에 따르면 Latam Chile도 마찬가지로 에어버스 A320 항공기로 7월에 산티아고/폰타 아레나스-포클랜드 주 1회 취항 항공망 연결의 시작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 리오 가제고스에도 월 1회 취항을 고려하고 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3월 13일자



포클랜드, 해양관리구역 공개 협의 시동

3해리 떨어진 근해 2개 구역, Burdwood Bank 주변

포클랜드 제도 정부 집행위원회는 해양관리구역 (MMAs)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를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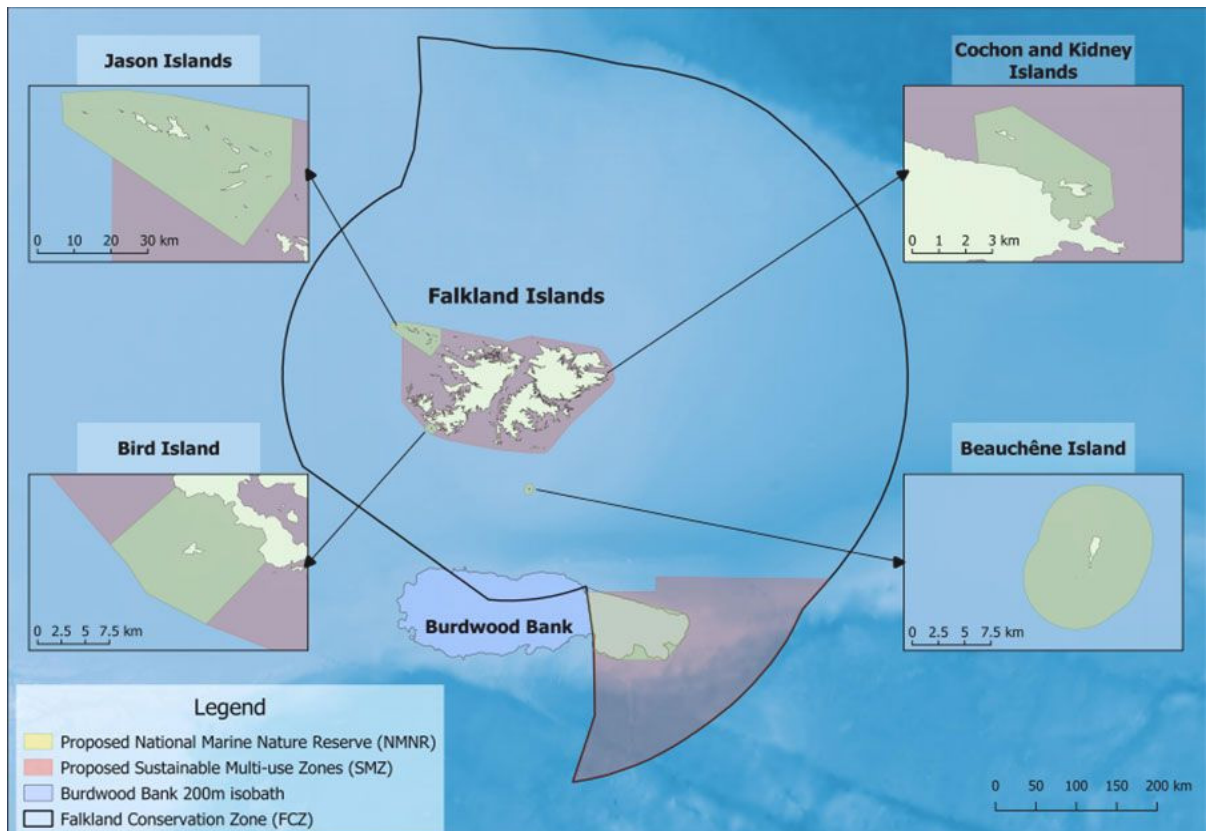
이제 포클랜드 정부는 이 건에 대해 산업에 연관된 협회, NGO, 일반 대중과 협력해 제안된 해양관리 구역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현재 제안에 따르면 해양관리구역에는 보존 구역으로 계획된 국립해양자연보호구역과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장기 지속가능한 활동

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구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속가능한 다용도 구역으로 제안된 두 지역은 기존 포클랜드 제도 기선에서 3해리 떨어진 근해 영역에 위치해 있다. 보존 구역은 Burdwood Bank에서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수심은 200m 이상이다.

올해 3월에 협의가 시작되어 올해 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3월 19일자



명태 수급 국내 동향 (2020말)

- 최근 국내 공급량은 27~28만여 톤 수준에서 '19년 20만여 톤으로 감소 후 '20년 23.7만여 톤으로 회복세
- 수입량은 최근 3년('16~'18) 26만여 톤 내외로 정착되었으나, '19년 18만톤으로 20만톤 붕괴 후 '20년 20만여 톤으로 다소 증가
 - 전체수입량 : ('18) 253,952→('19) 180,353→('20) 209,729톤
 - '20년 전체 수입량 중 러시아 명태 관세감면 물량 약 13만여 톤으로 75%점유
 - 관세 감면 : ('18)176,193(82%)→('19) 89,172 (61%)→('20) 129,255(75%)
 - 일반 수입 : ('18) 38,772(18%)→('19) 57,167(39%)
 - ('20) 43,897(25%)

《 명태 수급동향 》

(단위 : 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 (A)	24,342	31,626	20,015	20,129	23,498	24,003	23,915	27,196
원 양	24,341	31,624	20,012	20,123	23,497	23,994	23,915	27,196
연근해	1	2	3	6	1	9	0	0
수입량(B)	233,534	215,784	227,821	255,766	259,252	253,952	180,353	209,729
C (A +B)	257,876	247,410	247,836	275,895	282,750	277,955	204,269	236,925
수출량(D)	46,017	22,933	8,436	15,064	8,409	10,487	12,520	5,439
C - D	211,859	224,477	239,400	260,831	273,264	267,459	191,749	231,486
재고량(톤)	78,145	91,693	110,099	102,962	99,399	102,590	65,858	87,24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 [재고량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19년 공급 및 재고량 감소에 따라 '20년 도매 및 소비자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생산자 판매가는 공급물량 확대로 하반기부터 하향세
 - 생산자(원/팬) : ('15)33,427→('18)26,771→('19)34,819→('20)37,437
 - 도매가(원/kg) : ('15) 2,032→('18) 1,943→('19) 1,935→('20) 2,592
 - 소비자가(원/kg) : ('15) 3,300→('18) 3,849→('19) 3,526→('20) 3,801
 - * 생산자 가격은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통계 자료(5~9통 평균어가)



패밀리마트 명란젓 스넥 신제품 출시

명란젓, 마요네즈, 치즈 등 조합

일본 패밀리마트는 4월 6일부터 주요 명란젓 업체 かねふくの 명란젓을 사용한 핫 스넥을 전국의 패밀리마트 약 1만 6,600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신상품은 2종으로 매운 명란과 마요 소스가 특징인 ‘ファミチキ(명란 마요 맛)’(세금 포함 220엔),

명란젓이 들어간 소스와 슬라이스 치즈를 닭고기와 튀김옷 사이에 넣은 ‘明太チーズインファミチキ’(230엔)이다. 패밀리마트는 명란젓 맛 주먹밥과 빵을 출시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4월 13일

러시아 명태 어획 17% 감소

오호츠크해 4월 6일 기준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오호츠크해 포란 명태 어획량은 혼획, 연안 어업 등을 포함해 4월 6일 현재 72만 3,9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주요 어장인 캄차카·쿠릴 및 서캄차카 조업구역에서의 명태 전업 조업은 3월 31일자로 금지되

어 A시즌이 끝났다.

현재 북부 오호츠크해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태 조업 척수는 88척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4월 9일자



A시즌 명태 Deep-skin 생산 증가 지속

PBO 생산량은 여전히 낮아

알래스카 명태 가공업자들은 바쁜 사순절 프로모션 시즌에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ep-skin 제품 생산은 지난해 수준에 거의 도달(82%)했다.

deep-skin은 맥도날드의 Filet-o-Fish 샌드위치 등을 포함해 업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고객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세븐 일레븐의 "bites"와 같은 계절 프로모션 제품에도 종종 deep-skin이 사용된다.

패스트푸드, 유통 체인점들이 deep-skin을 사용하면 미국 명태 생산자에게 유리하다. 중국 가공 Deep-skin은 러시아에서 H&G 형태로 중국에 수출, 재가공 되어 더블프로즌 제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

가시제거 필렛(PBO) 생산은 여전히 지난해 동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50%)한 상태이다. 미국 업계 소식통은 PBO 생산량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자들이 A시즌 동안 deep-skin 생산에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B시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ep-skin은 공급 부족으로 톤당 3,800 달러까지 치솟은 PBO 보다도 20%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모선들은 A시즌 쿼터의 76% 정도를 소진해 조업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한 명태 대형선박 소유자는 4월 중순에 조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30일자

러시아 2022년 TAC 권고안, 올해 수준

200만톤

회의를 열고 2022년 EEZ 내 총허용어획량(TAC) 권고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전체 TAC에서 64%를 차지하는 명태 TAC는 오호츠크해 100만톤을 포함, 전년 수준인 200만톤으로 제안되었다. 명태 자원 분포는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서서히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부 해역에서는 비교적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승인된 명태 TAC 안에 따르면 오호츠크해의 각 해역이 3% 감소, 서 베링해가 1% 감소했다. 남 쿠릴 해역의 TAC는 16% 증가한 13만 5,000톤이고 러시아 측 동해(연해주·서 사할린)는 19% 증가한 3만 2,450톤이다.



일본 '20년 말 공치 재고 1만톤 붕괴 지난해 대비 38% 감소

수산청이 올해 2월말에 발표한 냉장수산물 유통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창고의 2020년 12월말 냉동공치 재고는 9,209톤으로 지난해 대비 38% 감소했다. 공치 재고가 1만톤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국내 어획량이 3만톤 아래로 2만 9,566톤을

기록해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2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중국 등의 선박도 일본과 같이 생산이 부진해 수입 재고를 보충하는 것도 제한적이였다. 지난해 월간 입고량은 2,139톤으로 30% 감소했다. 월간 출고량은 1,917톤으로 34% 감소했다.

공치 월말 재고량 추이와 일본 국내 생산량

(단위 : 톤, 10kg 당 엔)

연도	월말재고량												어획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단가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270	6,900	6,089	6,994	8,987	9,209	29,566	4,804
2019	23,685	22,223	21,205	19,448	18,385	17,228	15,775	13,639	12,416	13,140	14,953	15,014	40,517	3,160
2018	21,143	19,502	16,642	14,051	13,054	11,648	10,606	9,926	11,936	22,473	24,208	24,726	119,930	1,878
2017	26,120	23,674	21,732	17,864	16,444	14,692	12,644	10,964	10,210	14,686	22,343	21,991	77,169	2,776
2016	30,604	28,202	25,803	23,634	21,421	19,597	16,324	13,740	16,661	24,058	30,344	29,914	109,590	2,131
2015	40,125	36,453	32,906	29,838	27,069	24,796	21,603	21,769	21,592	30,446	30,506	32,272	112,264	2,207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 신문, 2021년 3월 11일자



일본 업체 LED 집어등, 효과 보여 에너지 절약과 어획 능력 견비

하코다테에 본사를 둔 어업장비 제조업체 (주)동화전기제작소의 공기 어선용 LED 집어등은 에너지 절약과 어획 능력을 갖춰 현재 동일본대지진 부흥신조선 등 20척 이상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기종 'EFW220-3F'는 대형어선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전력이 80kw 정도이며 19톤 어선의 경우 30kw 정도로 높은 에너지 성능을 발휘한다.

물론 어획 성능도 확실하다. 지난해 공기 어기에 이 회사의 LED 집어등을 설비한 어선(대형선)이 업계 최고 수준의 어획고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LED 집어등을 설치한 어선이 6년 연속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공기 어업은 최근 역사적인 불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공기 눈에 가장 감지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단파장, 장파장이 폭넓게 발광하는

LED를 사용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LED를 새롭게 장착한 어선은 『중전에 비해 어군 유도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며 효과를 실감한다고 한다.

올해 공기 어기를 위해 3척의 대형 신조 선박이 이 회사의 LED 집어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사는 오징어 어업용 LED 집어등을 재해 부흥 어선 4척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 공기 업계에 비해 도입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어획이 증가하는 빨강오징어 어획조사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주목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 신문, 2021년 3월 11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일본 참다랑어 양식실태 통계 요약 (2020말)

□ 일본의 발표내용 분석결과 자연산 종묘입식을 제한하는 대신 양식산 종묘(인공종묘)를 통한 양식기반 조기정착 노력을 위해 인공 종묘 사용 양식장 확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영체	주 소 소재지별	83	83	92	95	94	95	95	95	93	91
	현 별	94	93	102	105	103	105	105	105	103	103
양식장(개소) (양식산)		137	140	147	150 (36)	160 (45)	175 (58)	177 (60)	189 (76)	188 (74)	186 (75)
가두리 수(대) (양식산)		1,032	1,191	1,362	1,375 (124)	1,436 (171)	1,657 (289)	1,618 (296)	1,549 (275)	1,556 (287)	1,527 (266)
종묘입식 (천마리)		753	473	611	515	943	995	868	789	590	515
- 자연산		539	205	347	222	394	526	373	410	358	320
- 양식산		214	268	264	293	549	469	495	379	232	195
출하량	마릿수 (천마리)	190	177	197	230	226	209	247	273	302	293
	- 자연산		169	191	219	205	193	224	252	262	231
	- 양식산		7	7	11	21	16	22	21	40	62
	중 량(톤)	10,224	9,639	10,396	14,713	14,825	13,413	15,858	17,641	19,588	18,609
- 자연산	10,224	9,395	10,120	14,326	13,881	12,563	14,740	16,494	17,389	15,514	
- 양식산		244	276	387	943	849	1,118	1,147	2,199	3,095	
종묘채포 어선(척)		2,300	1,900	1,500	1,500	1,600	1,700	1,200	1,100	1,000	8000

* 위 표는 그래프를 표로 재 구성한 것임

- 통계는 참다랑어 양식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실적 정리
- 일본어 표기 천연산은 자연산으로, 인공산은 양식산으로 각각 표기함
- 2020 마리당 평균 출하 중량 : 63.51kg (자연산 67.2kg/양식산 49.9kg)



일본, 어업 환경 변화 장기화 경계

수산청, 흥어 대응 검토회 시작

수산청은 지난 4월 8일 도쿄 도내 전문가들을 모아 '흥어 문제에 관한 검토회' 첫 회의를 개최해 최근 쾅치, 오징어, 연어의 어획부진 원인을 분석했다. 검토회는 이 어종들이 수온, 해류 등 환경요인에 의해 자원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쾅치와 오징어는 감소한 자원을 국제적인 어획 증대가 타격을 준 것으로 본다고 해설.

동 검토회의 결론은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 연구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의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쾅치는 2000년대까지 자원이 풍부하고 어획 압력도 지속가능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일본 연안 수역에 분포했던 자원의 근해화(면 바다)와 자원의 어미(친어) 수 감소, 어획압력 과잉이 보고되고 있다.

쾅치가 일본 연안의 고수온을 피해 먹이가 적은 근해로 이동, 성장과 사망률이 악화되거나 0세어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가설이 있다. 또한 외국 어선의 조업 진입 등으로 어획 압력이 상승해 자원이 더 악

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는 최근의 수온 변화가 산란 해역의 축소와 유생 생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과 북한의 어획 압력이 높아진 것도 자원 악화 가운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는 연어를 포함한 3개 어종의 어획이 크게 감소한 것 외에도 온수성 어종인 방어, 삼치와 초식 어종이 증가하고 참다랑어와 참고등어가 성장하는 해역이 변화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 요인이 자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환경 분석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과 자원의 변화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검토회는 기후 변화 등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흥어가 장기화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비공개로 검토할 것이다. 5월 하순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사항을 정리해 수산기본계획(5개년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4월 12일자

일본제지 그룹, 어류 수송 골판지 개발

방수성 높은 원지 사용

일본제지 그룹의 제지 회사인 일본동해산업용지공급은 지난 3월 16일 다기능 골판지 원지 '방수 라이너'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방수성이 높아 스티로폼 용기와 마찬가지로 얼음을 채워 어류를 운송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높은 방수성뿐만 아니라 방습성, 방유성을 겸비한다. 이 원지를 사용한 골판지 상자의 도입 장점은 ① 높은 방수성, ② 저장 공간 축

소와 운송 효율화, ③ 재활용, ④ 석유 유래 원료의 사용 감소 등이다. 회사의 실험에 따르면 스티로폼 용기에 비해 저장 공간을 87.5%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품은 스티로폼 용기에 비해 저장 공간을 30% 늘릴 수 있으며 석유 유래 원료를 96% 줄일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25일자



도시바 테크, 선도 평가 시스템

스마트폰 조작, 저비용, 비접촉, 즉시 수치화

도시바 그룹에서 유통 시스템 관련 장비 제조 등을 다루는 도시바 테크는 어체에 접촉하지 않고 선도를 판별하는 독자적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평가 시스템은 어류의 선도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부패 가스의 농도를 형광 시험 라벨과 스마트폰 등으로 감지해 스마트폰 앱이 자동으로 선도를 수치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며 1~2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 선도 평가 시스템은 자외선 광원을 내장한 부속품을 스마트폰에 부착해 사용한다. 라벨은 어류에서 발생하는 부패 가스에 반응해 소광(反応)하는 형광체가 사용되며 어류 보관 상자 내부 등에 붙여진다. 이 라벨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어류의 선도가 형광값으로 바로 수치화된다.

이 라벨은 밀폐 상태에서 어류와 함께 일정 시



鮮度評価結果 (イメージ)

간 동봉되어 있는 등 부패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수산 가공공장에서 원어의 품질 관리, 각 유통 단계에서의 선도 체크,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 어류의 선도 시각화 등을 꼽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18일자

일본, 2050년까지 인공종묘 비율 100%

방어, 다랑어, 뱀장어

도쿄 나가타츠의 자민당본부에서 지난 3월 23일에 개최된 양식어업간담회에서 수산청 증식추진부 黒萩真悟 부장은 농림수산성의 '녹색식량 시스템 전략'의 수산 분야 개요를 설명하고 2050년까지 인공 종묘 비율을 방어, 잿방어, 참다랑어, 뱀장어 100%, 어류 양식 전체에서 80%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밝혔다. 또한 2050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사료에서 환경 영향이 적고 사료 공급 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로 100% 전환

하고 동시에 배합사료에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어분의 비율을 20%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양어사료협회에 따르면 전체 어종 평균 어분배합 비율은 '16년 43.7%, 이후 조금씩 증가해 '19년 45.9%, '20년 46.3%를 기록했다. '녹색식량 시스템 전략'은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의 양립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림수산성이 검토를 진행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3월 24일자

가루만으로 어묵 요리 가능 물, 국물 등에 넣으면 어묵 만들어져

스즈히로 가마보코 본점(鈴廣蒲鉾本店)은 업무용(기업, 음식점 등에서 사용) '만능 으갠 가루'를 발매했다. 분말에 물을 넣어 배합하는 것만으로 생 어묵(으갠 어육)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6개월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봉지에 작게 나눠 보관하기 때문에 냉동 및 생 어묵에 비해 사용이 현격하게 향상되었다.

물 배합 비율에 따라 탄력과 찰기를 조절할 수 있고 국물이나 두유 등에도 넣어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며 어묵의 맛도 자유자재로 조정 가능하다.

어묵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이다. 1포에 50g으로 물을 혼합하면 250g의 어묵을 만들 수 있다.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해 저장성이 높다. 무게가 냉동 어묵의 5분의 1이며 냉장고가 필요 없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원료는 흰살 생선의 어육과 물엿, 소금, 설탕이 전부이다.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도록 양념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음식점이나 급식, 의료 식품, 반찬 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제공 가능하다. 어묵의 가능성을 넓히는 제품이 될 것 같다.

자세한 제품 정보와 레시피는 <https://www.kamaboko.com/surimipowder/>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19일자



영국, 수산업계 지원 보조금 신청요건 공개 보조금 약 6백만파운드

영국의 어업 및 수산물 부문, 연안 공동체 및 해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600만 1,000 파운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매치 펀딩(match-funding) 보조금 제도가 시작되었다.

영국 해양당국은 4월 6일 어업과 수산식품계획(FASS)에 대한 신청요건을 공개했다. 이 펀드는 초기에 유럽 공통 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에서 벗어난 환경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와 코로나19 영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펀드는 지역 기업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 판매를 장려하는 것에서부터 어구의 크기와 종류를 보다 선별적으로 만들고, 작업 여건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FASS 목표〉

- 새로운 지역 시장 및 다양한 제품 판매 지원과 같이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새로운 거래 조건

에 대응하도록 지원

- 어획이력추적 체고 및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 촉진하는 혁신 지원
-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장비 사용으로 환경 보호
- 높은 수준의 보건, 안전, 위생, 작업환경 지원으로 어선과 연안의 안전성 개선

〈FASS 우선순위〉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부문 장려
- 부문별 환경영향 저감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 세계적 수준의 과학 및 혁신 제공
-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해안 공동체 지원
- 어업 기회와 역량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재고 및 쿼터 관리 개선 지원
- 마케팅 및 가공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 국내외 영국의 기업의 잠재력 확보
- 산업 인프라 개발

* 기사 출처: FISHING NEWS, 4월 15일자

노르웨이 Lie Gruppen사, 포일 장착 트롤선 주문

어선 최초 시도

노르웨이 Lie Gruppen사는 터키 Cemre 조선소에 포일을 장착한 트롤선을 발주했다.

신조선은 전장 71m, 폭 15m이며 어선 최초로 포일(bow foils)을 장착한다. 포일은 선체의 앞부분에 설치되며 접을 수 있다.

신조선은 포일의 설치로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어 에너지 사용, 안전, 선내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일은 열악한 조건에서 운항 속도를 더 빠르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7일자



노르웨이 대구 양식의 미래

Norcod 2월 생산량 두 배 증가

대구 양식은 10년 전만 해도 차세대 대형 양식업종으로 거론되었지만 주류로 진출하는 데 실패했다. 느린 성장, 높은 사망률, 탈출, 동종식육과 같은 생물학적 문제들로 생산측면에서 타격을 입었다. 바렌트르해와 다른 지역에서 자연산 대구의 쿼터가 급증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투자은행 Pareto Securities의 Petter Dragesund 애널리스트는 “최근 희비가 바뀌어 양식 대구 생산자들은 2025년까지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Dragesund의 계산이 맞다면, 양식 대구 생산량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산 대구 생산량 27만 1,000톤에서 37% 증가한 증가분과 맞먹는다. 또한 노르웨이와 러시아 대서양 대구 수확량의 8% 증가분, 바렌트르해 어획량의 11% 증가분과 맞먹는다.

Dragesund는 올해 약 6천톤, 2024년에는 2.5만~3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양식 벤처기업 Norcod의 전망 수치를 기초로 했다.

Norcod는 2월 대서양 대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Arctic Seafood Group의 CEO Nicolaj Weiergang은 『연어는 여러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며 『동시에, 우리는 증가하는 대구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Weiergang은 대구의 유전학과 바다 양식 적응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Norcod의 성공으로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여 대구가 우리에게 적합한 투자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12일자

영국, 민간에서 무료 온라인 경매 시스템 개발

어업인들 무료, 낙찰자에게 수수료 받는 시스템

영국에서 Bullfish라는 전자 경매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어업인들은 경매 기간과 시작 가격을 설정하고 최고 입찰자에게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시장 가격과 수요를 찾아볼 수 있다.

Bullfish는 어업인들에게 완전 무료이며 경매에서 낙찰된 구매자에게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Bullfish 프로젝트 동업자 중 한 명인 Michael MacCorquodale은 이 시스템이 일일 조업 어선으로부터 제한된 양의 수산물을 찾는 소규모 구매자에게 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Bullfish는 최소 30kg도 취급 가능하다.

* 기사 출처: FISHING NEWS, 2021년 4월 6일자



EU-영국 어업 협상 난항

잠정 TAC 설정 유력

2021년 어업에 합의하기 위한 영국과 EU 간 협상이 위기 시점에 섰다.

양측은 3월까지 1분기 잠정 쿼터를 설정해 조업할 수 있었으나, 현재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어업인협회(NFFO) Barrie Deas 협회장은 지난주에 3월 말까지 회담이 '어떻게든 합의될 것'이라고 일반적인 기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일부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거리'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Deas 협회장은 『문제는 그들이 계속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TAC, TAC 조건, 농어와 셀틱해 기술 조치와 같이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합의할 것인지』라며 『나는 그들이 최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EU가 모든 것을 봉합하고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측(영국) 장관들이 산업에 대한 확신을 원하고 3월 말 이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EU 수산 장관들은 협상단이 공동 관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TAC에 대한 '플랜 B'와 영국과 공유된 자원에 대한 쿼터에 합의했다.

Virginijus Sinkevicius EU 수산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열린 농수산 회의가 끝난 뒤 『이사회가 위원회 제안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는 실행 가능한 타협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결국 7월 31일까지 유효한 잠정적인 TAC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논의에서 '절대 필수적인' 기준은 브렉시트 무역협력협정(Brexit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조항의 준수와 과학적 조언에 부합한 TAC"라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FISHING NEWS, 2021년 4월 6일자

스코틀랜드, LED 조명으로 혼획저감 시도

12개월 시험 조업 시작

스코틀랜드 어선 Virtuous FR253호는 새로운 LED 조명의 설치로 더 정밀한 어업 및 혼획 감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12개월 시험 조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Associated Seafoods Ltd.(ASL)사, Marks & Spencer(M&S)사, Young's Seafood사와 어업 기술 회사 SNTech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저서 어업 및 노르웨이 랍스

터(nephrops)와 같은 어획물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에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인공조명 장치인 'Pisces'는 혼획을 줄이고 전반적인 조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 배치된다.

SNTech에 따르면 'Pisces'는 선박이 원하지 않는 어류를 그물 밖으로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그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4월 12일자



모로코 위원회, 모로코-러시아 해양수산 협정 승인 1992년 이후 8번째 협정

모로코 외교, 국방, 이슬람, 해외 거주 모로코인 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National Defense, Islamic Affairs and Moroccans Living Abroad)는 4월 8일에 모로코와 러시아 간 해양수산 협정을 승인했다. 이번 협정은 2016년에 체결, 2020년 3월에 만료된 협정을 갱신한 것이다.

의회 내 소식통은 모로코 EEZ 어업 자원을 개발 및 보존한다는 협력 원칙과 대서양 연안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의 어업 조건이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1992년 이후 이런 유형의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이번 협정은 4년간 유지되며 10척의 러시아 선박이 모로코 수역에서 소형 표층어류를 어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동 소식통은 합동 위원회가 협정 첫째 러시아 선박에 부여할 쿼터를 결정하기 위해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알렸다.

* 기사 출처: Yabiladies, 2021년 4월 9일자

나미비아 수산부, 민대구 15,948톤 경매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나미비아 수산해양자원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 정부 몫에 대해 나미비아인과 국제 입찰자 모두에게 입찰을 제안하는 광고를 나미비아 국가 신문에 게재했다.

수산부는 민대구 선어 1만 1,164톤, 냉동 4,784톤을 경매에 붙였다.

나미비아 회사는 경매물량 중 절반에 입찰할 수 있다. 나머지 반은 국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표이다.

입찰자는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재무부에 이메일(fishquota.auction@mof.gov.na)로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가는 톤당 6,000 나미비아 달러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 물량은 100톤 단위이다. 입찰자는 보증금을 예비 가격과 입찰 물량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입찰이 실패하면 보증금은 입찰자에게 환불된다.

수산부는 경매 결과가 5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찰자는 5월 7일 오전 10시 이전에 입찰 금액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

* 기사 출처: Informante, 2021년 3월 24일자



캐나다 그룹, Young's Seafood 모회사 인수 CapVest(사모펀드) Young's Seafood 인수 2년만에 매각

캐나다 식품 생산 그룹인 Sofina Foods Inc는 국제 사모펀드 회사 CapVest Partners LLP로부터 Eight Fifty Food Group을 인수하는데 동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Sofina 그룹은 캐나다 최대 식품 생산 업체 중 하나이다. 브랜드로는 Cuddy, Lilydale Janes, Mastro, San Daniele, Fletcher's, Vienna, Zamzam이 있다.

CapVest사는 2017년 영국 돼지고기 가공업체 Karro Food Group을 인수하고 2년 후인 2019년에

다양한 단백질에 역량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Young's Seafood를 인수하며 Eight Fifty 그룹을 발족했다. 그 후 5개의 유럽 단백질 사업체들이 그룹에 추가되었다.

Eight Fifty 그룹은 현재 23개 제조 현장에서 8,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3월 29일자, IntraFish, 3월 29일자

세이셸, 신규 구역 수산물 가공 신청 기업 평가 Ile du Port섬 신규 선정 구역, 6월에 선정기업 공개

세이셸 정부는 Ile du Port섬에 신규로 지정된 수산물 가공구역에서 어류 가공 시설을 임대 및 개발할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을 올해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세이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공개 입찰을 시작했다. 세이셸 수산업 분야 고위 공직자인 Roy Clarisse는 1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성공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은 5월 까지 제안서를 세이셸 투자위원회(SIB)에 제출

해야 한다.

Clarisse는 『2023년 중반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목표 가공 제품은 참치 및 참치 유사종의 신선, 냉동, 자숙이며 주로 수출 목적으로 가공될 것이다』 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할당될 구역은 7만m²에 달한다.

* 기사 출처: allAfrica, 2021년 3월 29일자



대만, 어선 강제 노동에 대한 NGO 보고서 대응 SeafoodSource에 성명서 전달

대만 수산 규제 당국은 어선 강제 노동 관련 NGO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성명서를 SeafoodSource에 전달했다.

대만 수산청은 성명에서 원양어선에서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 및 처리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항만 검색과 선원 인터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청은 항만 검색 규모에 대해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근무시간 기록표(time sheets)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과 인권 실행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어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만은 이제 채용 대리 기관(recruitment

agent)에 연간 검토(annual review)와 정부 서식을 사용한 모든 계약서의 5년 보관을 요구한다고 알렸다. 채용 대리 기관은 더 이상 외국인 선원의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

환경정의재단의 Steve Trent 전무는 대만 수산청이 시작한 개선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Trent 전무는 『대만 원양어선은 전 세계 32개 해외 항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검색을 수행하는 대만 공무원이 지정된 항구는 8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8개 항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권 침해 관련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4월 2일자

영국 어업 기술 혁신

온라인 회의에서 빛, 음파, 카메라 등 활용 논의

수산업 관련 영국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APPG on Fisheries)과 1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은 데이터와 기술이 영국 어업 부문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영국 전역 혁신가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Tom Rossiter는 빛을 이용해 혼획 어종의 어획을 억제하는 SafetyNet Technologies Ltd에서 개발한 어구를 언급했다.

Paul Fernandes 교수는 수중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사용해 선택적 어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트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Fishtek Marine Ltd의 Robert Enever 박사는 고래류의 어획 방지에 수중음파 발신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업자, 정책 입안자, 기술자 간의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3월 30일자



MZ 세대, 지속가능한 수산물 구매 전환 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 에코라벨 등에 민감

수산물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수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GlobeScan의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회사에 대한 보상을 선택 하겠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20%였지만 2020년은 긍정적 응답이 38%로 급증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사 정보를 더 많이 원했다. 63%는 자신이 소비하는 어류가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25%만이 제품의 에코

라벨을 신경 썼다고 말했다. 가장 어린 연령대인 18세에서 34세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에코라벨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수석 마케팅 매니저인 Kristen Stevens는 『Z세대는 라벨링을 살펴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며, 온라인 인플루언서로부터 영감을 받아 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 며 『이 세대는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습관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고 전망했다.

* SeafoodSource, 2021년 3월 18일자

3국(노르웨이, EU, 영국), 북해 자원 관리 합의 대구 등 6개 종 쿼터 설정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후 노르웨이, EU, 영국은 올해 1월부터 북해 주요 공동 이용 자원의 관리에 관한 합의를 위해 3자 회담을 시작했다.

두 달 간의 협상 끝에 세 당사국은 6개 종의 공동 관리 협정에 서명했다. 6종 중 5종의 쿼터는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가 권고한 어획량 수준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합의된 6종의 TAC 총량은 63만 6,000톤이다.

대구(cod), 북대서양 대구(saithe), 가자미

(plaice), 청어(herring) 쿼터는 각각 지난해에 비해 10%, 25%, 2%, 7.4% 감소했다. 반면 해덕대구(haddock)와 청대구(whiting) 쿼터는 각각 20%, 19% 증가했다.

북해 대구는 쿼터는 ICES에서 권장한 16.5% 감소보다 완화된 10%로 감소 결정되어 1만 5,911톤으로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3월 18일자
FISHING NEWS, 2021년 3월 22일자



EU 의회, 새로운 수산 통제 시스템 도입

12m 이상 선박의 선상 카메라 설치 필수

EU 어업인 단체 Europ che는 EU 위원회를 향해 유럽 어업인들의 책임감에 대한 의심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새로운 어업 통제 시스템에 찬성표를 던졌다. 어업 통제 시스템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양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12m 이상의 선박은 선상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선주에게 자발적으로 선상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킥터 추가 할당 또는 벌점 소멸과 같은' 권장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다.

유럽 의회는 또한 모든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모든 EU 회원국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EU 등록부(EU register)의 설치를 제안했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류 이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통해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어구 분실 시 국가 당국에 알리고 이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선내에 구비'하도록 하는 규칙을 도입하여 폐어구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통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허용된 양의 어류만 어획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불법 어업 척결, △어업 기회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허용, △EU 국가들과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EU 전역에 규칙 및 제재의 조화로운 적용 보장, △그물에서 식탁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수산물을 추적하고 확인 가능.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 해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해역 외에서 조업하는 EU 어선에 대한 영향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3월 15일자

세이셸 SFA 이사회 의장 선임

Roy Clarisse

Wavel Ramkalawan 세이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수산업 및 관련 자원 개발을 위해 세이셸 어업국(Seychelles Fishing Authority, SFA)의 이사회(SFA는 이사회에서 관리) 의장으로 Radley Weber를 임명하고 수석 보좌관으로 Roy Clarisse 를 임명했다.

Clarisse 의장은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에서 시스템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세이셸 어업국에서 ICT 매니저, 부사장, 임시 CEO를 역임했다.

새로운 SFA 의장은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고 부가가치 수산물로의 개발 및 전환을 포함하여 수산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의제를 이행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Roy Clarisse 의장 선임으로 세이셸 수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3월 19일자



바다의 마음

이 목 사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핏쥐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여기 바다의 은총(恩寵)이 잠자고있다.

흰돛(白帆)은 바다를 칼질하고
 바다는 하늘을 간절너본다.
 여기 바다의 아량(雅量)이 간직여있다.

날근 그물을 바다를 얹고
 바다는 대륙(大陸)을 푸른 보로싼다.
 여기 바다의 음모(陰謀)가 서리워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해수부,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4.13)와 관련하여,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혔다.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작년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였고,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또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하였다.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콩치, 미역 등 40여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간다.

그리고,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멧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025)」 발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30일(화) 발표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우리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농식품의 일부로 취급되면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전후방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① 수산식품기업 역량 강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만관 합동 수산펀드를 확대 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수산식품기업의 온라인 유통망 채널 입점과 단계적 성장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가공 인프

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 권역)와 지역별 중·소규모 거점단지(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전담체계를 구성한다.

【②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소비경향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③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기반 조성】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제품의 구매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④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세계적인 비대면 교역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국 수산식품(K-Seafood)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출 거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산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운송망 구축하고, 중동남미 등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 시장 개척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고, 수산식품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어선 선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원양어선 교육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 실시간 불법어업 제보도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 세계에서 조업 중인 우리국적 원양어선 선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불법어업 제보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4월 7일(수)부터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원양어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예방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업규정 재개정 사항 등을 빠르게 전파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에 있는 선박위성통신(MVSAT)*을 활용하여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 Maritime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현재

30% 구축되어 있으며, 원양산업협회 노사위원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올해까지 원양어선에 100% 구축할 예정.

조업감시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국내외 조업 관련 법령과 국제수산물기구 조업규정의 재개정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방지를 위한 EEZ 좌표 현행화 등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방지를 위한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조업감시 상황실을 통해 불법어업 제보 및 원양업계의 애로사항을 카카오톡 채널로 상시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어류 불법포획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제보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불법어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조그룹, 원양어선 1척으로 시작해 50년만에 매출 3조원 달성 창립 50주년 맞아 “새로운 50년 역사 쓰다”

종합식품기업 사조그룹이 지난 3월 19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사조그룹은 1971년 자본금 3,000만 원과 직원 5명, 중고 원양어선 1척으로 참치 독항사업에 나섰다. 이후 오대양을 누비며 수산자원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50년이 지난 현재 세계 최다 참치 선단을 보유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 우뚝 섰다.

현재 사조 그룹은 수산, 식품/유통, 축산, 레저 등 30여개 계열사를 지닌 연간 약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50주년의 자리에 오기까지 노력해준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사조그룹의 미래와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쓰는 대열에 사조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하자"고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조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담은 50년사 "도전 신뢰 열정 사조 50년사" 사집을 발간했다. 사집은 △창업 전 역사 △창업과 성장 기록 △계열사 면모 △모기업 사조산업의 현재 면모 △역사를 빛낸 히트상품과 그 속의 이야기 등 5부로 구성됐다.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선원박물관·마도로스 거리 만들자”

선원·해운 단체, 대선 공약 채택 위한 추진위 구성

선원·해운 관련 단체가 모여 부산항 북항재개발 지역에 선원박물관과 마도로스 거리를 조성하자며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5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중앙동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등 6개 단체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박물관·마도로스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사회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선원들의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자는 의미다.

추진위는 앞으로 선원박물관 건립 부지와 예산 확보를 정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일류 해운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원의 역사를 되짚고 공로를 기리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 채택했다.

추진위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선원박물관을 건립할 공간을 확보하고, 박물관 앞 거리와 중구 중앙동을 연결한 마도로스 거리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영도구 태종대공원에 설치된 ‘해기사 명예의 전당’을 마도로스 거리로 이전해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해외취업 선원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 노동자 등과 함께 국가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하지만 유독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기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없어 선원, 해운 단체가 모여 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어선 대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수부,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은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

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하여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디지털정보 국제협력거점 한국에 설립된다

사무국 운영 및 기술개발 주도로 해양디지털 정보서비스시장 선점기반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 해양디지털정보 공유플랫폼 컨소시엄(이하 MCC,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Consortium) 사무국을 3월 30일(화) 세종시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해양디지털정보 공유플랫폼(이하 MCP,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은 해양디지털정보**를 국제적으로 24시간 끊김 없이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올해 1월부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1,308억 원)’의 일환으로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MCP를 구축(2016~2018)

** 전자해도, 최적항로, 기상정보, 항행안전정보, 입·출항 정보 등

MCC는 해양디지털정보의 국제표준 관리 및 범용화를 위하여 한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5개국의 3개 정부기관과 5개 연구기관 간* 약정을 통해 2019년 2월에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14개국의 총 29개 정부, 연구기관 및 업·단체가 가입하여 참여 중이다.

MCC 사무국은 의사결정 회의체인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작업반을 운영하며, MCP와 관련한 각종 기술표준문서의 개발·관리와 MCC 누리집* 운영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MCC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함에 따라, 한국이 관련 국제협력의 거점이 되어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 주도 등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첫 정책 협의회

반대 목소리 외면, 원론적 입장 되풀이

민간이 수행해 온 20t 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확대 개편할 ‘한국수산업어촌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며 뒤늦게 소집한 ‘정책 협의회’마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적극 협의하겠다고던 공인과 달리, 첫 만남부터 면피성 해명에 급급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개선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택했다. 해수부에선 선원정책과, 선원·외국인근로자 관리제도개선 TF, 어촌어항과 실무자가 배석했다. 반대편엔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선주협회, 민간 송입업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해양수산부는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지에서 선원을 선발, 교육하고 국내로 보내주는 것까지 공단이 책임지는 개선안을 내놨다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 관리는 일선 수협과 민간 업체가 담당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국내 관리는 공단이 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 조직도 없고 지구별 수협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다.

반면 어민 단체와 민간 업체는 현행 체계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견고하게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현지 선발과 국내 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적극성이 민간보다 경직되고 느슨한 공단으로는 다양한 현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인 어민 입장에서 볼 때, 민간이 선발에서 손을 떼면 상

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공급 문제나 무단이탈로 인한 공백을 지금처럼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실태가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해수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다. 사용자인 어민 지원 단체인 수협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2일 자 공고를 통해 ‘한국수산업어촌공단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업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신설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을 포함 시켰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일선 수협 등 어민단체와 민간업체는 반발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한쪽에선 민간이 공들여 확보한 시장에 해수부가 산하 기관을 내세워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불멘소리와 함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해수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입법예고 기간(3.2~4.18) 동안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입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589-1604	총괄	해외협력 1부	신현애	589-1612	총괄(겸직)	국제협력 참치선망·연승
		박설진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최봉준	589-1613	국제협력	
		조성환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589-1614	참치선망·연승	
	기획홍보부	이성재	589-1607	총괄	해외협력 2부	진호정	589-1616	총괄	복양, 공치 오징어, 기타트롤
		공길웅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주	589-1617	복양, 공치	
		김영수	589-1609	홍보		최동환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회원지원부	소기동	589-1610	총괄	부산 지부	이형균	(051) 253-3388	총괄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효상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공인 계량소	이영두	051)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및 일반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044-868-7837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희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j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2호

발행 : 2021년 4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물시장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물관(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교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 초청, 조사, 용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분(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쓱! 쓱! E-News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